

한전,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 79% 달성

솔빅테크 등 36개 기업 협약
993억 투자 568명 고용창출
2020년 500개 유치 순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조성하는 에너지밸리에 기업 유치 500개, 일자리 3만개 창출 목표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전력은 2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솔빅테크 등 36개 기업과 '2019년 제1차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나주시(시장 강인규), 그리고 협약을 맺는 솔빅테크 등 36개 기업의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7개사는 용지계약, 공사착공 등 투자실행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한 투자 금액은 993억원, 고용창출 인원은 568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이

에너지밸리에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기업의 수는 총 396개로 2020년 500개 기업 유치목표대비 79%를 달성했다. 투자기업 중 213개사는 투자를 실행, 실질 투자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149개사는 이미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5개사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또 29개사는 용지 매입을 마치고 착공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에너지밸리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전과 산업인력공단은 협약을 통해 ▲에너지밸리 기업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콘텐츠 개발·보급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에너지밸리 기업에 대한 우수기술 전수를 위한 산업현장교수 지원 등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으로 에너지밸리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공급에 노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및 인력양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관·기업대표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력할 예정이다. 한전은 나주로 이전한 지난 2015년부터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시작해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유치와 한국전기연구원, 한전 전력연구원, 전기설비시험연구원 등 에너지관련 연구개발기관(R&D)기관 등이 참여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김중갑 사장은 "에너지밸리 투자기업들이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 에너지밸리의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1.64 (-4.69)	↓ 금리(국고채 3년) 1.43 (-0.01)
↓ 코스닥 710.02 (-7.67)	↓ 환율(USD) 1156.20 (-0.30)

광주·전남 건설협회장 취임

“지역 건설업 수주물량 확대 총력”

김영주 광주시회장

“지역 건설업체 수주 물량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 불합리한 건설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추대호)종합건설 대표가 25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6월25일까지 4년 간이다. 김 신임 회장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사업하기 좋은 건설환경을 만들어 참여에 빠진 지역건설산업이 제도적 지원이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지역에서 발주되는 도시철도2호선, 첨단3지구, 군공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 등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등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광주시에 건의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물량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낙찰율을 높이고, 저가낙찰 근절과 적정 공사원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 출신인 김 회장은 전남대 경영대학원 경영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광주시회 부회장·대의원과 중소기업진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캠프, 광주·전남 16회로 확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홍창의)는 광주·전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이용 안내 및 민원 상담 등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지난해 4회에서 올해 16회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의 국유재산 매입과 대부(임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캠코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24일 장성읍을 시작으로 이날 함평 해보·신안 암태·광양읍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광주·전남 12곳에서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25일 20억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증서를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송중욱 광주은행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조영택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광주은행 제공>

은행연합회, 구입 입장권 청소년·장애인 등에 제공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지난 25일 금융권을 대표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에 20억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증서를 전달했다. 금융권은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여수 등지에서 개최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입장권 구매 등 총 25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10억원 규모의 입장권을 공동

구매할 예정이며, 일부 은행차원의 후원금, 입장권 구입 등을 포함하면 총 15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업권에서도 총 10억원 규모의 입장권을 구매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참석한 전체 은행장들에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

권대회 ‘수리달이’ 마스코트 인형을 전달하고, 입장권 구매 및 홍보를 부탁하는 등 금융권의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이끌어 냈다. 금융권에서 구입한 입장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에 제공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회원 의견 수렴 각종 제도 개선 최선”

공후식 전남도회장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후식 동림종합건설 대표이사가 25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4년 간이다. 공 신임 회장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도급 규제의 과도한 강화, 분리발주 확대 등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 지역 발주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적격심사대상 공사 낙찰률 상향,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 실적 상호인정 등 건설업계에 산적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 출신인 공 회장은 광주상고·광주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남도회 윤리위원·감사와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전남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세정지원 4대 패키지’ SNS 상담 서비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는 카카오톡 앱(APP) 플러스 친구 ‘광주본부세관’으로 개설돼 1대1

실시간 상담으로 구체적 사항을 문의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플러스 친구 ‘광주본부세관’을 검색한 후 ‘친구추가’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며, 지정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관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제공된다. /최재호 기자 lion@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